

세계 민주시민들, 5·18 현장 경험 '광주로... 광주로...'

독일 '민건' 회원·튀빙겐 대학생 60여명 광주 방문 전야제 등 참석
인권포럼에도 해외 저명인사들 참석... 오재일 교수는 LA 초청 특강
전 세계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주목... 헌법 전문 등재 시급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후로 전세계가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 5·18과 광주정신에 대한 담론이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세계 민주 시민들이 5·18의 현장을 경험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주를 찾아오고 있다. 특히 광주의 5·18 전문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외 각지에서 이들을 초청하고 있다.

전 세계가 5·18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등재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7~18일 독일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 회원들 30여 명이 광주를 방문, 5·18 전야제 및 정부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독일 '민건' 회원들을 초청하면서 광주를 오게 됐다.

독일 '민건'은 1974년 한국의 유학생, 목사, 광부, 간호사 등이 모여 서독의 수도 본(Bonn)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민족 통일을 지향하며 결성한 단체다. 독일의 지식인, 종교 단체, 진보적 정당 등과 연대해 독일 사회에 유신 정권의 반민주적 실상을 알렸으며 1980년 5·18을 접한 뒤 항의시위, 유인물 배포, 단식농성 등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했다.

오는 17~19일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 튀빙겐 대학생 3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해 5·18전야제를 비롯해 5·18사적지 답사와 전문가 특강을 듣고, 토론하며 5·18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현장 체험형 학습프로그램을 듣는다. 튀빙겐 대학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튀빙겐에 있는 대학으로 지난 2010년부터 고려대 캠퍼스 내에 TUCKU (Tuebingen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센터를 설립하고 해마다 30~40여명의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다. 튀빙겐 대학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8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5·18기념재단 '2024 광주인권

포럼'에도 해외 저명인사들이 찾아와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발제한다. 포럼에는 필리핀 전 국회의원인 월던 벨로(Walden Bello) 뉴욕주립대(빙엄턴) 교수, 필리핀의 활동가 메 부에나벤투라(Mae Buenaventura) '부채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 민중 운동' 국장, 태국의 활동가 네트위트 초티팟 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 등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 민족통합정부(NUG)를 세워 저항 활동을 하고 있는 NUG 진 마 아우웅(Zin Mar Aung) 외교부장관, 틴 툰 나이(Tin Tun Naing) 기획재정부장관 등도 16일 광주를 찾아와 포럼에 참석, '미얀마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함께 할 계획이다.

반대로 해외에서 5·18을 찾는 경우도 있다. 국내 5·18 전문가를 초청해 광주정신을 들켰다는 것이다.

오재일 전남대 명예교수는 16~20일 닷새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5·18 초청강연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오 교수는 LA 5·18 기념사업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서 '1980년 광주 5월, 기억을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5·18의 현황과 과거 경험, 문제점 및 과제 등을 짚어보는 강의를 열기로 했다.

오 교수는 5·18의 발생 배경과 진상규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소개, 5월 문제의 해결을 위한 5원칙 등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5·18기념재단 설립 이후 이뤄진 학술·연구사업, 문화·교육사업, 국제적인 교류·연대사업까지 이뤄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5·18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 결과와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소재, 무기고 피습, 압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 등 핵심 사건이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강의한다는 것이 오 교수의 계획이다.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과 오월 정신계승, 외국 대응, 전국화·세계화와 오월 관계자에 대한 후생 복지 등 남은 과제도 짚어볼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참배 발길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15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내 유영보관소에서 참배객들이 오월영령들의 영정을 보며 넋을 기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월만 되면 가슴이 답답"...광주시, 오월 심리치유

광주트라우마센터, 17~18일 금남로·국립묘지서 이동센터 운영

광주시와 광주트라우마센터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인 17~18일 금남로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가폭력 생존자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오월심리치유이동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월심리치유이동센터는 광주시민의 '오월증후군' 치유를 돕고 공도체 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5월 운영하고 있다.

'오월증후군'은 해마다 5월이 되면 5·18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이 떠오르면서 불안이나 답답함,

분노, 슬픔, 우울감을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17일 금남로,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센터 직원과 자원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오월증후군 설명, 치유대상자 발굴,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 수집,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포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 고위험군 증상이 있는 경우 센터 치유·재활프로그램에 등록·연계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택배 사각지역 없앤다...신안 등 전남 10개 취약지역 지원

접근성이 떨어져 배송비가 비쌌던 신안군과 완도·진도군 등 도서 및 산간 지역이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에서는 10개 지역이 지정되면서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2개 시·군·구 일부 지역을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 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일까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물류 취약 지역으로는 ▲목포시(유달동) ▲여수시(돌산읍, 울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월호동) ▲고흥군(도양읍,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영남면, 과역면) ▲보성군(별교읍, 문덕면) ▲해남군(화산면, 송지면, 화원면) ▲무안군(방운면) ▲영광군(낙월면) ▲완도군(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진도군(진도읍,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신안군(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등 전남 10곳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제주도과 경북 울릉도, 부산 가덕도, 인천 연평도·백령도,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영월·양구, 경북 봉화·영덕 등의 일부 산간 지역이 포함됐다. 물류 취약 지역 주민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또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게 되는 등 화물 운송 관련 규제 완화도 적용될 전망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전남 국립 의대 설립 지금이 골든타임 ▶2면
- KIA 나성범 이틀 연속 홈런포 ▶18면
- 팔도 핫플레이스 - 충남 부여 '백제 시간 여행' ▶22면

생명영광의 땅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대한민국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

전남형 상생 일자리 8.2GW 해상풍력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발전수의 공유'

주민 이익 공유형 · 수산업 공존 발전단지 조성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 조성

해상풍력 기자재 및 연관기업 450개사 유치 · 육성

'12만개 지역일자리' 창출

최첨단(AI, ICT 등) 전문직군 및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그린수소 전주기 메가 클러스터' 구축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